

AUTHOR 라은성 (Eun Sung Ra)

TITLE 카톨릭 칭의에 대한 칼빈의 비판(II)  
(Against the Justification of the Roman  
Catholicism (II))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71 no.2 (Summer, 2004):273-303

#### IV. 결 론

제임스 인벨 패커에게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기독교 영성에 한 획을 그은 복음주의자” “마지막 청교도” 등등이 그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패커의 명성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논제들을 꿰뚫어 보는 그의 능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는 이 같은 논제들을 꿰뚫어보되 명료하고 심오하면서도 경건하게, 그리고 역사적인 안목으로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sup>68)</sup>

패커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공격받아 왔던 시대에, 그리고 성경이 외부에서 가 아니라 내부에서 비판을 받아 왔던 때에, 그는 복음주의적 입장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적인 것이며,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의 전적인 무오류성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수호하는 것 중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패커는 신학이 교회의 부흥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될 때는 결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학문이 아니며, 또한 교리가 지루하고 재미없기는커녕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어야만 할 하나님과의 온전한 체험의 열쇠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sup>69)</sup>

68) 마크 A. 놀, *op. cit.*, p. 237.

69) Christopher Catherwood, *op. cit.*, pp. 250-251.

## 카톨릭 칭의에 대한 칼빈의 비판(II)

라 은 성  
(역사신학)

### I. 들어가는말

### II. 트랜트 종교회의

1. 전 트랜트
2. 트랜트 종교회의
  - 첫 번째 주기
  - 두 번째 주기
  - 세 번째 주기

### III. 로마 카톨릭 칭의에 대한 해독제

1. 법령에 대해
2. 교회법에 대해

### IV. 나가는 말

부록: 6번째 회기

## III. 로마 카톨릭 칭의에 대한 해독제

### 1. 법령에 대해

1545년부터 1563년간 세 주기로 진행된 트랜트 종교회의의 주요 목적은 쓰러진 교회를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이단들에 대한 정죄를 위함이었다.<sup>75)</sup> 300년 이상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트랜트 종교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대부분이 교황의 수하에 있는 이태리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황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하였던 자들이었다.<sup>76)</sup> 그들이 트랜

트에서 제정한 법령들과 교회법들은 지금도 유용하다.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상이점은 바로 칭의의 문제였고, 로마인들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내린 중요한 혐의이기도 했다.<sup>77)</sup> 6번째 회기에서 트렌트 종교회의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로워진다”(justification through faith alone)는 교리에<sup>78)</sup> 대하여 다루었다. 수개월이 걸린 회의는 “말도 많고, 혼란스러웠고, 난해하고, 그리고 편파적인 결정들이었다.”<sup>79)</sup>

1546년 6월 21일에 시작된 6번째 회기에서 트렌트는 신학자들이 사절단과 많은 감독들 앞에 제시한 6가지 질문을 받았다:

1. 칭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2. 칭의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영향을 끼치시며 인간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3.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 칭의는 전이나 후에 행함이 일어나는가? 성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5. 칭의 전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으로 일어나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6. 성경, 종교회의, 교부들, 또는 사도적 전통과 같은 권위들 중 어디에서 위의 질문들의 답변을 찾을 수 있는가?<sup>80)</sup>

위의 질문에 따라 회의는 6월 22일과 28일간에 6회의 모임을 모여 의논했다. 각 모임은 3-4시간씩 할애했다. 그리고 제출된 것을 결정한 것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첫 장부터 그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간에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고 설명한다.<sup>81)</sup>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죽으심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수난의 공로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담의 씨앗에 감염되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의로울 수 있겠지만 감염되므로 아담에게 접촉되었고 그것에 영향을 받았기에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sup>82)</sup> 이에 대해 칼빈은 펠라기우스의 길을 포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부터 그들의 자세는 그리스도만 토로하는 것 같지만 진작 주제에

75) 대부분 칼빈의 반 카톨릭적 작품들은 1540년에 사돌레토(Sadoletto)에게 보내는 답변, 1544년 황제 5세에게 보내는 종교개혁의 필요성 등이 있다. Opera, vol. VI에 담겨있다. 대부분은 Henry Beveridge에 의해 번역되었다: “Tracts.” 이것은 1547년에 쓰인 Acta Synod Tridentinae cum antidoto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의 Opera, vol. VII, 365-506에 라틴어로 쓰여 있다. John Calvin, Calvin's tracts: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with the Antidote, vol. III, trans. by Henry Beveridge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951), 25. 칼빈은 트렌트 법령들과 교회법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것들을 92-107까지 나열한다. 또 트렌트 칭의관에 대한 약간의 비판내용은 주석(특히 하바국과 로마서)에도 나타나지만 그가 쓴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 xi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후자의 칭의를 설명하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트렌트 칭의관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Tracts”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76) Cunningham, vol. I, 487.

77) Ibid., vol. II, 1.

78)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적 진리이다. 수 세기 동안 겨우 몇 사람들에게만 유지되었을 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대에게 잊혀진 진리였지만 마틴 루터에 의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기독교진리의 핵심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그 자체 이다. 이것으로 인해 로마의 가르침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복음과 로마 카톨릭, 그리고 종교개혁과 로마 카톨릭간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상이점을 나타낼 수 있다. 종교개혁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지만 로마 카톨릭주의는 교회에 그것을 돌리고 있다. 카톨릭인들은 구원을 교회 안에 두고 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구원의 저자는 하나님이심을 위대한 종교개혁자들-루터, 츠빙글리, 칼빈-은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트렌트에 모였던 논쟁을 즐기는 신학자들은 사람을 자신의 구주로 만들었고 선행의 효험과 공로를 찬미하였다.

79) Ibid., vol. II, 12. 6번째 회기의 법령들과 교회법 전문은 부록에 실고 있다.

80) Jedin, vol. II, 175-6; Waterworth, cii.

81) 트렌트 종교회의의 모든 법령과 교회법은 “The Canons and Dogmatic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in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Grand Rapids: Baker, 1977), vol. 2, 77-206에서 읽을 수 있다. 또 부록에서 번역되어진 내용은 A. Nampon, S. J., *Catholic Doctrine as Defined by the Council of Trent* (Philadelphia: Peter F. Cunningham & Son, 1869), 281-304을 번역한 것이다. 다음부터는 간략하게 ‘The Council of Trent’라고만 기술할 것이다. The Council of Trent, Secession VI, chap. i.

82) The Council of Trent, Secession VI, chap. iii. 부록을 참고하라.

들어가는는 그를 떠나서 자신의 것들에 근거를 둔다. 결국 그들의 정의는 스콜라 학자들의 진부한 교의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펠라기우스보다 조금 수정된 것을 보일 뿐이다.”<sup>83)</sup>

그런 후 칭의에 관해 트레نت에서 마무리된 로마교회의 교리는 칭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칭의는 “첫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의 상태에서부터 둘째 아담이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양자됨과 은혜의 상태로의 변환(translation)이다. 이러한 변환은 ‘중생의 옷대야’(laver of regeneration)없이<sup>84)</sup> 복음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sup>85)</sup> 이러한 칭의가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기되는(prevenient) 은혜에서 유래” 되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그들은 칭의로 개종시키시기 위해 소생시키시고 도우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함께 협력하고 자유롭게 동의하므로 이루어” 진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나를 변화시키소서. 내가 당신께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의 자유에 경고를 받으리이다 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오 주님, 우리를 개종시키소서. 우리가 개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겠나이다.”<sup>86)</sup>

세례-‘중생의 옷대야’-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칭의로 여

83) Calvin, “Tracts,” 108.

84) “중생의 옷대야”를 세례, 즉 유아세례로 여기는 데 7장에 가서는 칭의의 수단적 원인을 세례의 성례라고 한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견해는 칭의와 성화를 혼돈 하는데서 나온 듯하다. 칭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있으며 그 준비로 인해 칭의를 받게 될 사람은 실질적인 공유를 가진 셈이다.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vi, viii을 보라.

85)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iv. “translatio ad eo statu, in quo homo nascitur filius promi Adæ, in statum gratiæ et adoptionis filiorum Dei per secundum Adam Jesum Christum, salvatorem nostrum.”

86)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v.

기고 있는 로마 카톨릭 주장에 대해 칼빈은 어느 한 순간에 칭의가 일어난다고 한다.<sup>87)</sup>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석방”(acquittal)인데<sup>88)</sup>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가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칭의의 시작만 아니라 행함이 결코 구성되어있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sup>89)</sup>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sup>90)</sup> “그들은 유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 유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선포하신 약속, 즉 그들과 그들의 씨앗들에게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에 근거한다고 칼빈은 비판한다.<sup>91)</sup> 더욱이 칼빈은 세례 없이 은혜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구원도 세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미 일어나고 세례로 보증된다.” 로마 카톨릭인들이 근거로 내세운 요한복음 3:3의 말씀의 물을 세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한다.<sup>92)</sup>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부터 칭의가 일어난다고<sup>93)</sup> 설명하는 로마 카톨릭은 그러한 은혜가 사람의 자유의지를 자극시키고 돕는다. 신적 은혜에 자극되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참된 것임을 믿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끌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두게 된다. 모든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죄를 중오하게 된다. 그리하여 “세례를 받고, 새 삶을

87) Calvin, “Tracts,” 129.

88) *Ibid.*, 115. cf. 록 17장과 롬 8:33.

89) *Ibid.*, 113-4. cf. 행 13:38.

90) *Ibid.*, 125.

91) *Ibid.*, 109.

92) *Ibid.*, 110.

93)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그들은 칭의로 개종시키시기 위해 소생시키시고 도우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함께 협력하고 자유롭게 동의하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 이것을 사람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감을 받아도 아무 것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v.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은 모든 의의 근원인 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 하지만 세례를 받기 전에 "행해야만 하는 참회 (penitence)로 죄에 대하여 어떠한 증오와 미움"을 가져야 한다.<sup>94)</sup>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공로, 즉 그의 순종이나 수난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up>95)</sup>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다.<sup>96)</sup>

이렇게 하여 칭의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불신자든 죄인이든 두려움이나 소망에서 시작 한다: "신적 의를 두려워하게 되어 동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들을 속죄하셨음을 확신하면서 소망으로 일어난다."<sup>97)</sup> 이러한 마음을 준비되는 과정을 계속하여 설명한다.<sup>98)</sup> 이에 대해 칼빈은 "마치 그들은 은혜에 자극시키고 돕는 직무를 부여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협력하는 것처럼 말한다. ... 이는 마치 의지를 자극시키는 것과 같으며, 의지가 약할 때 새로운 마음을 형성하여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예레미야 32:39, 에스겔 36:27, 히브리서 8:10과 10:16을 인용한다. "그들의 잘못은 ... 중생의 은혜와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은혜 간의 차이점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칼빈은 이에 대하여 비판한다.<sup>99)</sup> 또 법령 5장 끝에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성경에서 지지를 받는 것처럼 "우리를 개종시키소서. 우리가 개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겠나이다"[렘 33:18]라는 말씀 인용한다. 하지만 사람이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추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변화시키소서. 당신에게 돌아가리이

94)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vi. 세리판도(Seripando)는 트란트 종교회의의 6번째 회기에 그는 칭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의 공판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비로운 사랑을 나타내는 자신의 행함의 의에서인가 아니면 우리의 불완전함을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의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 법령 6장에 나오게 된 것이다. Robert Charles, Jenkins, *Romanism: A Doctrinal and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Creed of Pope Pius IV*, (London): Religious Tract Society, [1882]), 111-2.

95)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 chap. iii

96)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I, canons v. 유아세례에서 원죄는 사람을 받고 중생으로 깨끗해지고 속죄된다. *Ibid.*, Session V, chap. iv. 현세욕(concupiscence), 죄를 지을 자발성이거나 경향이 남아있지만 죄책도 없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Ibid.*, Session V, chap. v.

97)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vi.

다"라는 의미로 들리며 의지의 힘을 도출한다고 칼빈은 비판한다.<sup>100)</sup>

더욱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칭의보다 앞서서 믿음은 신약의 성격도 아니며 약속에 명시된 신적 자비에 대한 신뢰도 아니다. 그것은 교회에 의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믿는 신앙이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말하는 역사적 믿음과 거의 흡사한 경우이다.<sup>101)</sup> 사제들은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신비롭게 주입시킨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자세들을 통해 죄인을 도우는 한 그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롭게 의롭게 된다고 한다. 더욱이 믿음과 사랑의 자세인 이러한 자세들은 공로적이며 칭의를 위한 마음을 준비토록 하고, 합당한 공로를 소유토록 한다. 그래서 신적 보상을 받게 된다. 곧 칭의를 받는다. 그 결과 "죄의 사면만 아니라 내적 사람의 성화와 갱생으로서 은혜와 선물을 자발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

98) 로마 카톨릭 신학자 덴스(Peter Dens)는 성인들이 세례를 통해 칭의에 이르기 위한 7가지 자세를 트란트 종교회의가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는 신적 은혜로 인해 죄인이 자극되고 도움을 받는다.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 다섯 번째는 통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례라 한다. 덴스는 1775년 2월 15일 벨기에 앤트워프 근교에 있는 붐(Boom)에서 태어난 덴스는 루뱅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신학에 헌신하였다. 1729년까지 메클린(Mechlin) 신학교 의 신학교수, 교회의 목회자(1729-1737), 신학교 학장(1735-1775)으로 봉사하면서 성직자들의 도덕과 과학적 훈련에 힘을 쏟았다. 1777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Theologia ad usum seminariorum"이 출판되었다. 종교의 참회와 덕행에 관한 소논문("Supplementum theologiae Laur, Neesen, De virtute religionis" Dictata de sacramento Poenitentiae, Mechlin, 1758), 그리고 여러 글들을 썼다. 또 덴스와 순서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카톨릭 신학자 페론(Perrone)도 동일하게 말하는 데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칭의 외에도 두려움, 소망, 사랑, 참회, 그리고 신적 계명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ierre Dens, *Theologiae moralis et dogmatica* (Dublini: Ricardi Coyne, 1872) tom. ii, 450. 페론(Giovanni Perrone)은 제수잇 회원으로서 1794년 이태리 치에리(Chieri)에서 태어났다. 1815년 12월 14일 튜린(Turin)에서 박사학위를 얻어 오르비에토(Orvieto)에서 신학을 가르쳤다. 몇 년 후, 로마대학에서 교의학 교수로 있었다. 그의 대표적인 9권으로 구성된 작품, "Prælectines Theologicae"은 36권에 이를 정도였다. 대부분 프랑스어로 쓰여 졌으나 몇 권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그리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Prælectiones Theologicae* (Rarisbonnae: G. J. Manz, 1874), tom. i, 1407.

99) Calvin, "Tracts," 110-11.

100) *Ibid.*, 112.

101) Perrone, tom. i, 1415.

지고 원수가 친구가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후사가 된다.”<sup>102)</sup> 하지만 칭의와 성화가 밀착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sup>103)</sup>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우리 안에 있는 의를 신뢰할 수도 없다.<sup>104)</sup>

트렌트 법령 7장에 이르러 로마 카톨릭인들은 루터의 칭의관—특히 *sola fide*—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다.<sup>105)</sup> 칭의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을 부인하고 갱생과 성화까지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고 한 후 칼빈은 로마서 4:6과 시편 32:1을 인용하면서 죄의 사면, 즉 석방을 의미한다고 한다. 로마인들은 “두 가지, 즉 칭의와 성화를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부인하고 같은 것이며 하나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칼빈은 지적한다.<sup>106)</sup>

특별히 칭의의 형식적 원인, 죄의 실질적 사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관한 것을 다룰 때 두드러진다:

최종적 원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생이다. 유효한 원인은 유산의 특권이신 약속의 성령으로 속죄하시면서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로적 원인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자비로우신 사랑[*charity*]을 위하여 십자가 나무에서 가장 거룩한 수난으로 우리를 위해 의롭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만족하도록 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수단적[instrumental] 원인은 세례의 성례, 즉 믿음의 성례이다. 이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유일한 형식적 원인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하나님께서 의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되도록 하신다[*making us just*]는 것이다. 평판으로서만 아니라 그렇게 불러진다. ……

… 생명에 들어오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진실한 기독교 의를 받게 되면 그들은 순수함과 무흠을 유지하기 위해 곧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마치 아담이

102)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vii.

103) Calvin, “Tracts,” 116.

104) *Ibid.*, 129-32. cf. 왕상 8:46; 시 143:2; 갈 3:10; 롬 7:24; 행 15장, 갈 3:10; 약 2:10.

105) *Ibid.*, 114, 118, 121.

106) *Ibid.*, 114-6; *Institutes*, III, xi, 1.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본인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상실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첫 옷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가질 수 있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sup>107)</sup>

여기서 유의할 것은 칭의의 “수단적 원인”이 “믿음의 성례”인 세례이고, “형식적 원인”이 칭의 그 자체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수난의 공로를 기초하고 있는 믿음, 소망, 그리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갱생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로 인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칭의가 죄를 사하는 것만 아니라 성화와 내적 인간을 갱생하는 것까지 말하고 있게 되어 혼돈하게 된다. 더욱이 “순수함과 무흠을 유지하기 위해 곧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서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만일 “수단적 원인”이 세례만이면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칼빈은 세례는 “복음의 부가물”에 불가하며<sup>108)</sup> 세례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 구원은 말씀에 기초되어 있고 세례로서 확인되어진다.<sup>109)</sup> 사면(absolution)이 성례라는 주장에 대해 칼빈은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상징이 어디 있는가? 형식은 어디 있는가?”라고 반박한다.<sup>110)</sup> 그리고 요한복음 20:22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사면을 자유롭게 약속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한 고백의 필요성에 묶여있다”고 했다.<sup>111)</sup> 사면은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그것

107)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vii. 로마 카톨릭인들은 ‘세례적 중생’(baptismal regeneration)을 억지 주장한다. 성경적 근거로서 사도행전 2:38, 요한복음 3:5, 디도서 3:5-7, 사도행전 22:16, 베드로전서 3:21, 등을 제시한다. Ludwig Ott, *Fundamentals of Catholic Dogma*, ed. James Canon Bastible, trans. Patrick Lynch (Rockford, Ill.: Tan Books and Publishers, 1960), 354. 이러한 주장에 대한 복음주의적 답변은 가이슬러와 맥켄지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러한 주장들과 해석들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릇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Geisler and MacKenzie, 부록 E를 보라. 특히 687-98을 보라.

108) *Ibid.*, 116-7.

109) *Ibid.*, 117.

110) *Ibid.*, 110.

111) *Ibid.*, 138.

112) *Ibid.*, 139.

을 제정했던 때에 이르러 실시되었다. 즉 1,000년 동안 교회에서 실시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sup>113)</sup>

이런 면에서 볼 때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칭의론은 바울 서신서, 특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방법과 전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과 개혁파 고백서들과<sup>114)</sup> 전혀 다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법정적(forensic) 칭의를 말한다. 율법의 시각에서는 죄인으로서 응당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무죄가 되어 영생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의 근원이며, 죄인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는 공로적 원인이며, 수단적 원인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인해 죄인은 복음에서 제안하는 의를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 볼 수 없다.

113) *Ibid.*, 140. 연옥은 성경에서 아무런 기반을 찾을 수 없고 단지 외경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이다. *Ibid.*, 68. 연옥에 관해 더 알기를 원하면, Geisler와 MacKenzie, 16장을 보라.

114) 웨스트민스터 고백서(1647) 11장 1-2절과 비교해보라:

(11장 1절)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신 사람들을 그가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데, 이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게 여겨 받아줌으로써이다.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로서, 신앙 자체 즉 믿음의 행위나 그 외의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에게 그들의 의로 전가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데,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11장 2절)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칭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믿음 뿐 아니라 모든 다른 구원의 은혜가 수반되는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또 개혁파의 최초 신앙고백서인 벨직 신앙고백서(1561) 23장 칭의에 관하여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면되었음을 믿는다. ... 하나님께서 의를 행함 없이 사람에게 전가하셨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로워진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런 기초를 든든히 붙잡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본래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도록 하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종에만 의미하자.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두려움, 공포와 무서움에서 자유하고, 무화과나무 앞으로 자신을 가린 첫 사람인 아담의 예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모든 것이 소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기도해야만 한다: “오 주여,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 앞에서 의롭지 못할 것이기에 주의 종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오직 그 분에게만 영광이 돌려진다. 죄인이 자신의 속성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주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심오한 평화를 소유하게 된다.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 칭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한 견해는 로마 카톨릭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들은 죄인의 칭의 근거가 그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만족케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한다. 칭의의 형식적(formal) 원인이 유입되거나 선천적 의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칭의의 형식적 원인이 되는 선한 속성이 주입될 때에만 우리의 칭의와 관계를 갖는다.<sup>115)</sup>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성장시켜 공로적이 되는 선행을 행하게 되고 영생을 받는다. 믿음에 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칭의와 믿음으로 공인된 연결은 유효하지는 않지만 선행이며 주입된 의의 한 부분이다.<sup>116)</sup>

로마 카톨릭인들은 두 가지 칭의를 말한다.<sup>117)</sup> 첫 번째는 “첫 번째 칭의”를 받을만한 공로가 죄인에게는 없지만 단지 적합하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과 교회의 계명들을 준수하므로 선행과 협력하는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의를 성장하게 되고 더욱 의로워진다고 한다.<sup>118)</sup> 두 번째 칭의에서 사람은 적합한 공로를 행하게 되고, 행적은 긍정적인 공적으로 인정되고, 하늘나라를 마침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선행에 관한 로마 카톨릭의

115)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anons, 10-12. “교회법 10.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도 의로워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의 자체로도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에게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 교회법 11. 성령으로 마음에 부으시고 그들에게 선천적인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만으로 또는 죄의 사면만으로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처라고 말하는 자에게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 교회법 12.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 죄를 사면한 신적 자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또는 이런 확신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하는 자에게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

116) Louis Bailly, *Theologia Moralis ad usum seminariorum* (Dublinii: Richardi Coyne, 1828), tom. v, 458, 462.

117) Jedin, vol. II, 177.

교리는 여기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축소되고 우리들의 선행이 공로가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게 된다면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볼 수 있다.<sup>119)</sup> 그래서 그들은 6번째 회기의 교회법 32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그 사람의 훌륭한 공로가 아닌 것처럼 의로워진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거나 의로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행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은혜, 영생, 그리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공로가 아니라 하는 자에게 파면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sup>120)</sup>

트렌트인들은 법령 10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교회의 계명, 그리고 선행과 협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의를 증진시킨다”고 한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면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의는 덕을 완전하게 하는데 있기는 죄의 용서에 있다”고 일축해 버린다.<sup>121)</sup>

법령 11장에서 로마 카톨릭인들은 의로워진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전제한다. 물론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감당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무거운 멍에가 달 것이며 가벼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신적 도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sup>122)</sup> 칼빈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의로워진 사람들에 의해 준수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펠라기안들도 어거스틴에게 같은 트집을 잡았다고 비난하면서 일축해 버린다.<sup>123)</sup> 법령 12장에서 “어느 누구도 신적 예정의 신비를 안다거나 예정된 수에 자신이 들어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한다. 이에 대해 칼빈은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세상이 기초가 마련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고 부름을 받은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하여 기억나게 했다”고 한다.<sup>124)</sup> 법령 13장에서 로마 카톨릭인들은 최종적 인내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며 끝까지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

절대적 확신 외에 다른 것으로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선행을 시작하도록 하셔서 완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경성해야만 한다.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만 한다. 노력하고, 경성하고, 자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금식하고, 순결해야만 한다. 영광의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 세상, 사탄과 전투를 벌여야 한다.<sup>125)</sup>

칼빈은 이에 대해 “확신을 금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인정한다. 그들에게 강력한 소망과 의심하는 기대를 서로 무슨 접착제를 사용하여 함께 붙

118)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ii. *Ibid.*, x.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친구와 가족이 된 후 덕으로 행하면서 그들은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날마다 갱생된다. 자신의 육체의 요소들을 고행정화하며, 성화에 이르도록 의의 도구로서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교회의 계명, 그리고 선행과 협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의를 증진시킨다(increase).” 두 가지 칭의에 관한 견해를 보다 알기를 원하면, Geisler and MacKenzie, 12장 특히 320을 보라.

119) David Pareus, Johannes Lancelotus, and Jonas Rosa, Robert Bellarmine, Roberti Bellarmini *politani societis Jesu theologi cardinalis De justificatione impij libri V* (Heidelberg: Impensis Jon Ros librarij Francofurtensis, 1615), chap. 5. 벨라민(1542-1621)은 1542년 10월 4일에 몬트풀치아노(Montepulciano)에서 태어난 재수잇 신학자, 저술가, 그리고 추기경이었다. 로마대학에서 철학을 배우고 플로렌스에서 인문학을 가르쳤다. 그가 개정한 불가타역은 트렌트 종교회의에 사용되기도 했다. 1567년 파두아에서 신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루벵에서 신학을 마무리 하면서 교수와 설교자로 명성을 나타내었다. 1588년 로마대학에 영적 교부(Spiritual Father)가 되었다. 1592년 로마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교황 클리멘트 8세는 그를 교황청의 최고 감독과 교황청 성서고문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수많은 책들을 썼다. 또 Geisler and MacKenzie, 321-4를 읽어보라.

120)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anon xxxii.

121) Calvin, “Tracts,” 128.

122)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xi. 연약하여 날마다 짓는 죄를 “경미한(venial) 죄”라고 부른다.

123) Calvin, “Tracts,” 130-1.

124) *Ibid.*, 135.

125)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xiii.



일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자"고 제안한다. 여러 가지 의심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적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뿐 아니라 살 것이라고도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sup>126)</sup>

의롭게 된 사람이 모두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마 카톨릭교회는 가르치지 않는다.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멸망에 이르기도 한다. 떨어지게 되면 교회가 그를 회복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그 회복은 참회의 성례를<sup>127)</sup> 통해 이루어진다:

세례 후 죄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회의 성례를 제정하셨다. ... 타락한 후, 기독교인의 참회는 세례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죄의 중지만 아니라 죄의 혐오, 즉 회오와 겸손한 마음만 아니라 죄에 대한 성례적 고백과 사제적 사면까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일은 금식, 선행, 기도, 그리고 영적 삶을 위한 여러 경건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sup>128)</sup>

위에서 보다시피, 상실된 칭의는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을 자극시키는 참회로 연결된다. 치명적인 죄의 "영벌"과 "죄책"을 사함 받기 위해 참회는 "죄의 중지만 아니라 죄의 혐오, 즉 회오와 겸손한 마음만 아니라 죄에 대한 성례적 고백"이 요구된다. 또 일시적인 경미한 죄를 위해서는 "죄의 중지만 아니라 죄의 혐오, 즉 회오와 겸손한 마음만 아니라 죄에 대한 성례적 고백과 사제적 사면까지" 요구된다. 이 일을 위해 "금식, 선행, 기도, 그리고 영적 삶을 위한

126) Calvin, "Tracts," 136-7. 칼빈은 여러 성경구절들을 소개한다. 딤후 4:8; 요일 3:2; 롬 5:2; 고후 5:1. 그리고 고린도전서 10:12-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해석한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소망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육신적 자랑을 삼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되씹는 이방인들 가운데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127) 제물은 회개를 가리켜 과선한 배의 두 번째 갑판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대해 칼빈은 "왜 두 번째 갑판이 언급한다면 세 번째, 네 번째 갑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되묻는다. Calvin, "Tracts," 138.

128)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xiv.

여러 경건 훈련"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 충족하게 되지 못하면 연옥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하거나<sup>129)</sup> 아니면 원리적이지만 미사에서 행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sup>130)</sup>

이에 대해 칼빈은 먼저 트렌트인들이 주장하는 참회의 존재성을 부인한다.<sup>131)</sup> 성경에 언급도 되지 않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과 죄를 사면하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허락이 없이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sup>132)</sup> 참회에 관한 것을 요약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들이 회개를 항상 생각해야만 하지만 트렌트인들은 그것을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어떤 불명한 것으로 상상한다.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갱생하는 회개를 명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에서 두려움이 자극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생명의 갱생이나 영의 중생, 그리고 자신의 타락으로 불만족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기 부인들로 구성되지만, 그 효험이 전속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트렌트인들은 타락의 교리를 교황청 아래 타락하고 보잘것없는 공허한 것으로 만들었다.<sup>133)</sup>

법령 15장에서 치명적인 죄로 인해 은혜는 상실되거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관해서 칼빈은 두 가지 관점에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내적인 죄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치명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선한 양심을 어떻게 믿음에 수반되는 것과 분리할

129)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I, canons xxx.

130)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XXVI, Decree concerning Purgatory. 또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XXII, chap. 2를 보라. 견진성사까지도 이생에서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XIV, chap. iii.

131)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성례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사인은 어디에? 그 형태는 어디에? 두 번째로 이런 직분이 사도들에게 부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Calvin, "Tracts," 138.

132) *Ibid.*, 141.

133) *Ibid.*, 143.

수 있는지를 되묻는다. 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믿음만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케 한다. 거룩하신 성령은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한다.<sup>134)</sup>

마지막 법령 16장에서는 행위의 공로에 관한 것을 천명한다. 로마 카톨릭인들이 그리스도의 의, 즉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하심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의는 신자들에게 전가되거나(imputed) 주어지거나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함이 아니다. 로마인들은 신자의 삶 속에 사역하시고 주입시키시는(infused)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역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신자의 개인적 의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과 프로테스탄트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간에는 구별이 난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의, 구원, 그리고 은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결과가 아니고 그의 의 자체인 것이다. 칭의는 믿음의 성례인 세례에서 배풀어지기 때문에 죄로 인해 칭의의 은혜를 몰수당한 자들은 잃어버린 은혜의 회복, 즉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참회의 성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칭의는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시킨다:

이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싫어하시는 의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하신 것이다. 뺏기지 않을 것이다. 선행에 관해 성문서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했다.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사도는 이를 증명했다. 지금 현재와 환난의 순간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영광의 영원한 것으로 여겨진다.<sup>135)</sup>

134) *Ibid.*, 144.

135)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xvi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우리들의 선행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해진 본질적 선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일뿐이다. 이런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의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든지 거절할 수 있다. 칭의든 성화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즉각 응답해야만 한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명시한다.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참된 구원의 믿음으로 만든다.

## 2. 교회법에 대해

트렌트인들은 자신의 입장을 묘사하고 난 후 교회법이나 교리들을 나타냈다. 누구라도 거절한다면 파문을 받고 영벌에 해당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천명하기 위함이었다. 교회법 1-3에서 그들은 켈라기아니즘을 정죄하는 것에 관해 칼빈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sup>136)</sup> 교회법 4부터 로마 카톨릭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교리들과 주장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비판하고 파문시키고 있다. 그래서 교회법 4에서<sup>137)</sup> 칼빈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자유의지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성령을 번거롭게 할 뿐이라고 전제하면서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과 다르지만 순종하게 될 때 다른 의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sup>138)</sup> 교회법 5에서 자유의지가 타락 후 소멸

136) "교회법 1, 2, 그리고 3에 대해서는 나도 아멘이라고 한다." Calvin, "Tracts," 147.

137)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anon iv. "하나님에 의해 자극하시고 움직여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극되고 부름이 있을 때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고,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준비하고 절차에 협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거부할 수 없지만 무생물처럼 단순히 수동적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

138) Calvin, "Tracts," 148. Cf. 요 6:45.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파문을 내린다: “아담의 죄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되었고 소멸되었다고 말하거나 이름뿐인 것, 즉 실재가 아니고 허구로서 사탄에 의해 교회에 소개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보다 중생이 앞에 있음을 고수하는 자에게 지옥가라는 말이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자유롭고 공정한 능력이라고 보지만 자유하지 못했다. 의에서는 자유 하지만 죄의 노예이기에 자유하지 못하다고 칼빈은 말한다.<sup>139)</sup> 교회법 6에서는 바울의 부르심과 유다의 배반을 같이 대조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반대했다.<sup>140)</sup> 교회법 7에 관해서는 칼빈은 그렇게 비판을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법 8에 관해서는 그대로 인정한다.<sup>141)</sup>

교회법 9를 보면 “오직 믿음만으로 불경건한 자들이 의로워지며 칭의의 은혜를 얻는데 다른 어떤 것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자신의 의지로 인해 준비될 수 있으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에게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존 칼빈은 이러한 교회법은 비성경적임을 전제한 후 로마 카톨릭인들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 없이도 믿음으로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마치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것이 마음과는 무관한 것처럼 말한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상이점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자신에게로 이끌기 때문에 믿음은 자발적이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믿음이 사랑의 실천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칭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42)</sup>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분명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법정적 칭의도 함께 거부함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칭의가 하나님께서 죄인 안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행했다는 것이다.<sup>143)</sup>

139) *Ibid.*, 148-9.

140) *Ibid.*, 149.

141) “지옥의 두려움-우리 죄를 위해 슬퍼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피할 수 있거나 죄짓는 데서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죄라고 말하거나 죄인을 더욱 악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자에게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anons viii.

142) Calvin, “Tracts,” 151.

교회법 10을 보면,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도 의로워지며 그 의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의 자체로도 그들을 공식적으로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에게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이러한 파문이 내려질 수 있으려면 괴변적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단순성에 끔찍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칭의의 형식적 원인이었다고 법령에서 이전에는 주장했다가<sup>144)</sup> 이제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파문 내린다. 그리스도의 의가 단지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본과 형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불경건한 것처럼 우리의 속성 보다는 전가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의롭다고 가르친다고 하여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145)</sup>

교회법 11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도 의로워지며 그 의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의 자체로도 그들을 공식적으로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에게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 “하지만 오직 믿음만으로 라고 말할 때는 죽은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믿음을 고수하므로 행하는 것이다(갈 5:6; 롬 3:22).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하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은 고독하지 않다.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것 태양의 열뿐이지만 태양은 고독하지 않다. 그 이유는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은혜와 믿음을 분리할 수 없지만 의롭게 하는 능력과 권능은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칼빈은 응답한다.<sup>146)</sup>

교회법 12에서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 죄를 사면한 신적 자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또는 이런 확신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하는 자에게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한다. 법정적 칭의를 완전히 부인할 뿐 아니라 전가된 사상까지도 증오함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증

143) Ron Merryman, “Justification by Faith and Its Historical Challenges,” *Grace Family Journal* (March/April 1998): 7.

144)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vii을 보라.

145) Calvin, “Tracts,” 151-2.

146) *Ibid.*, 152.

오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을 지배해야만 하는 권한을 없애기 때문이다. 법적 청의를 받게 되면 교회는 신자들을 교훈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도 하는 말이 트렌트인들은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자비, 즉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확신으로 정의내리지 않는다고 한다.<sup>147)</sup>

교회법 13에 관해서는 칼빈은 그렇게 평을 날카롭게 하지 않는데 교회법 14에 가서는 같은 것을 두 차례나 정죄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경건한 독자는 우리가 회개를 배제해서는 안되지만 사면의 원인과 관련했을 때에만 믿음을 언급해야만 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가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사면을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sup>148)</sup> 교회법 15를 보면 “다시 태어나고 의로워지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의 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 파면이 내려질 것이다”고 한다. 트렌트인들은 칭의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990년 추기경 오코넬(O’Conner)은 “내가 영원한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어느 순간이라도 알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다.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모른다. 교황 존 폴은 자신이 하늘에 갈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했으며 마델 테레사(Mother Teresa)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sup>149)</sup>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천명한다(cf. 요일 5:13).

교회법 16에 대해서는 칼빈은 “같은 일을 반복하여 말하고 싶지 않다”고 표현한다. 이어서 교회법 17에서 “의의 은혜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말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신적 능력으로 악에 이르도록 예정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에 대해 칼빈은 “중생케 하시는 성령이 중생 받은 자들 외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한다.<sup>150)</sup> 하나님의 계명은 의로워진 사

147) *Ibid.*, 154.

148) *Ibid.*, 154-5.

149) *New York Times*, 1 February, 1990.

150)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anon xvii와 Calvin, “Tracts,” 156.

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교회법 18에 대해 칼빈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sup>151)</sup> 교회법 19 “믿음 외에 어떤 것으로도 복음에 명한 것이 없고, 다른 것들은 명령되었거나 금지되었는지 무관심하다지만 자유롭다고 말하든지 10계명이 기독교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에게 파면이 내려질 것이다”에 관해 칼빈은 “아멘”이라고 말한다. 교회법 20에서 의로워진 사람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완전해진다는 트렌트인들의 주장에 대해 칼빈은 “어떤 분별력 없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신자들의 어깨에서 하나님의 명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은 그것들을 준수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고<sup>152)</sup> 한다. 교회법 21에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순종치 않고 신뢰하는 자로만 여기는 자들에게 파문을 내리는 것에 관해 칼빈은 누구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응수한다.<sup>153)</sup>

교회법 22에서는 19에서와 같이 아멘으로 긍정한다. 교회법 23에서 그들은 의로워진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자들과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정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중생한 사람은 경미한 죄들을 자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은 꿈과 같은 이야기이다.<sup>154)</sup>

교회법 24를 보면 “부여받은 의를 견인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도 증진시킬 수 없지만 행함이 얻어진 칭의의 유일한 열매와 사인일 뿐이고 증진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파면이 내려질 것이다”고 한다. 트렌트인들은 여기에서 신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의는 반드시 선행으로 증진되어야 하며 신자에게 그 어떠한 확실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21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있다. 선행

151) Calvin, “Tracts,” 156.

152) *Ibid.*

153) *Ibid.*, 157.

154) *Ibid.*, 158-9.

은 구원의 결과이지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법 25에서 칼빈은 의인들이 어떤 종류의 죄를 지어서 영벌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대체적으로 인준하지만 사람이 죄의 경중을 가릴 수 없다고 경고한다. 우리들의 선행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상을 위한 기대”라고 하는 교회법 26에 대해 칼빈은 바울의 로마서 4:14의 말씀—“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을 인용하면서 구원을 위해 양심이 선행을 찾는다고 하면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sup>155)</sup> 교회법 27은 교회법 25에서처럼 죄의 경중을 두고서 치명적인 죄를 보다 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칼빈은 다시 한번 말하기를 “성령은 불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죄, 즉 크든지 작든지 간에 불신앙과 미흡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고 응수하면서 믿음이 모든 죄들을 지배하면 그것들을 내 쫓는다고 한다.<sup>156)</sup>

교회법 28에서 죄로 인해 상실하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에 관하여도 대체적으로 인준하는데 칼빈은 믿음의 씨앗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믿음의 크기에 따라 참 믿음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타락한 사람이 반드시 로마교회의 성례를 행해야지만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법 29에 대해 칼빈은 노바투스(Novatus)를 연상케 하는 주장이라고 먼저 쏘아 붙인다. 주장하는 로마인들이 400년 동안 계속해서 악용했던 고해성사를 아직도 주장하는 것을 보고 철면피라고 할란다.<sup>157)</sup> 같은 문맥에서 다음 교회법에서 고해성사를 강조하는 그들의 억지주장을 보면서 칼빈은 성경 어디에서라도 죄가 사면된 후 받을 형벌이 남아있다고 하는데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그리고 연옥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연옥은 마치 복화술(ventriloquism)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성경의 모든 진리를 무너뜨려야만 가능한 조작극이라고 비판한다.<sup>158)</sup> 다음 교회법 31에서 “영원한 포상”을 바라면서 의로워진 자들이 선행을 일삼

155) *Ibid.*, 158-9.

156) *Ibid.*, 159.

157) *Ibid.*, 160.

158) *Ibid.*, 160-1.

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 그것 때문에만 의인들이 선행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임을 칼빈은 덧붙인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전혀 다른 동기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sup>159)</sup> 공로를 확인하는 교회법 32에서 칼빈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행함으로 빚어지는 선행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파면하는 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한다.<sup>160)</sup> 지금까지 주장한 모든 법령과 교회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끝으로 지적한다.<sup>161)</sup>

## 나가는 말

19차 로마 카톨릭 트레نت 종교회의(1545-1563)에서 밝힌 칭의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로마 카톨릭인들은 내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는 것이다.<sup>162)</sup> 성인의 경우에는 칭의는 자신의 의지에 세례와 참회의 성례를 통해 주어지는 구주의 은혜가 더해짐으로 이루어진다. 어린이들은 단순히 세례를 통해 중생할 수 있다. 칭의는 죄로 인해 상실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레نت인들은 이러한 칭의를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한다:

1) 칭의의 정의; 2) 칭의의 출처; 3) 칭의의 원인; 그리고 4) 율법과의 관계 등이다.<sup>163)</sup> 첫째로 칭의는 신적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상 죄의 상태에서 은혜와 양자의 상태로의 변환이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sup>164)</sup> 죄가 용서되고 혈통은 지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으로부터

159) Calvin, "Tracts," 161-2.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4-5).

160) Calvin, "Tracts," 162.

161) *Ibid.*

162) Nampon, 270-1. 그는 로마 카톨릭 칭의교리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나음을 칭의를 설명하는데 비유로 든다.

163) McGrath는 6 가지로 나눈다: 1) 칭의의 성격; 2) 선행과의 관계; 3) 의지와 의 관계; 4) 성례와의 관계; 5) 칭의의 확산; 그리고 6) 공로와의 관계 등이다. Alister McGrath E.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2:69.

친구가 된다. 성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유아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성화시키는 은혜로 불리는 이러한 자비로운 사랑의 은혜는 은근한 감격으로 영혼 깊게 스며들어, 영혼을 설득하여, 은혜와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러한 은혜는 감각으로 알 수 없지만 영혼의 마음을 도덕적으로 표현함으로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의롭게 되었어도 여전히 현세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로를 이룩하고 얻으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성화시키는 은혜와 칭의를 상실치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얻게 되는 은혜 또는 호의(favor)임을 믿는다. 그저 주시는 은혜이다. 선행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펠라기안들과는 다른 견해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선행해야 하고, 죄인은 이런 은혜에 동의하고 협력해야만 한다. 매우 자발적이기에 의지가 거부할 수도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sup>165)</sup> 그들은 영생이나 구원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보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sup>166)</sup>

셋째로, 칭의의 최종적 원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영생이다. 유효한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며 성령의 베푸심이다. 공로적 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수단적 원인은 세례며 형식적 원인은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이다.<sup>167)</sup>

넷째로, 칭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구원을 위해 그 분께서 베푸시는 공로적 은혜이다. 이러한 은혜는 배풀어지고, 증진하고, 상실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늘의 열매를 맺는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실제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배풀지 않으시고 공로를 받은 사람들에게 배풀어진다. 하지만

164)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iv.

165)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v.

166) George H. Anderson, *Justification by Fait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ol. 7 (Minneapolis: Augsburg, 1985), 54. 칭의에 관한 카톨릭의 자세에 대해 루터란들은 이렇게 비판한다.

167)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vi.

은혜를 거절할 수 있고 저항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계시의 진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도록 도우심이 있다. 거룩한 율법을 들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계명을 지킬 마음이 생겨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세례를 통해 일어나고, 모든 죄를 사하게 되고, 그 결과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 소망, 그리고 자비로운 사랑과 연합한다.<sup>168)</sup> 이렇게 받은 칭의는 증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교회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sup>169)</sup> 이와 같이 칭의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결과 하늘 나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로마 카톨릭의 칭의는 모든 것이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여 갈라디아니즘(Galatianism)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이다.<sup>170)</sup> 성화를 점진적 칭의로 혼돈하여 칭의가 증진해야한다고<sup>171)</sup> 하는데 칭의는 즉각적인 동시에 완성적이고 단회적이다. 또 죄의 만족을 위해 더 이상의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sup>172)</sup> 미국 칼빈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로마 카톨릭 칭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68)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vi.

169)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s. vi, x-xi.

170) Geisler and MacKenzie, 336. 바울은 첫 번 선교여행에서 이룩한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바른 진리에 서있지 못하고 그릇된 사람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세 가지 교리적 잘못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가 2:16에 나오는 율법주의(legalism)였다.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하고 또 유대 종교 관습, 즉 할례와 같은 것들을 따라야만 한다는 유대파(Judaizers)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반 노미니아니즘(Anti-Nomianism)이었다. 이것은 2: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를 가르치는 자들의 주장을 전파하는 교리였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니즘(Galatianism)인데 이것은 3:3에 나타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를 말하는 자들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을 일컫는다.

171) *Ibid.*, 320; The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hap. 10, canon 24.

172)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6), 512-3.

1) 내재하는 죄를 배제하는 것; 2) 신적 은혜의 적극적인 주입; 그리고 3) 죄의 용서이다. 공로가 없는 죄인은 예기되는 은혜로 칭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 예기되는 은혜는 죄인을 감춰진 믿음(*fides informis*), 죄책, 회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세례를 위한 갈망으로 이끈다. 죄의 오염이 세례로 없어지고 난 후 새로운 덕행의 유입을 구성한다. 내재하는 죄가 배제된 후 죄의 용서 또는 죄책의 제거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하지만 칭의의 은혜는 상실될 수 있지만 참회의 성례로 회복될 수 있다.<sup>173)</sup>

성경적 진리와 교리를 회복시킨다는 미명아래 종교개혁에 반응으로 일어난 로마 가톨릭교회의 트레نت 종교회의는 정치적 음모, 교황 우월권적 음모, 그리고 지리 멸절한 참석자들이었고 그들이 결정한 사항, 즉 칭의에 대해서도 어설프게 종교개혁 진리를 판정하고 정죄했을 뿐이다. 자신들의 야성을 높이 세운 결과를 낳았다.<sup>174)</sup>

트레نت는 범종교회의가 아니라 “교황 종교회의”이다.<sup>175)</sup> 종교회의 후에도 많은 비판이 나올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몰린(Charles du Moulin)을 비롯한 교회법학자들은 무효라고 했다.<sup>176)</sup> 왜냐하면 그 곳에 참석한 자들은 “교황들의 앞잡이들이었고 고용된 대리인들”이었기 때문이다.<sup>177)</sup> 그래서 교황의 의도

173) *Ibid.*,

174) Froude, 173.

175) Jedin, *Crisis*, 22. 재단은 트레نت 종교회의에 관해 “당시에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간의 갈라진 틈을 연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카톨릭 편에서 책임을 맡고 나서는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 종교회의의 목적은 카톨릭 교회에 신실하게 남가를 원하는 사람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앙을 돈독케 하고 다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 프로테스탄트를 끝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결론 내린다. Jedin, vol. I, 165. 또 자넬도 범종교회의라 부를 수 없다고 한다. Peire Janelle, *The Catholic Reformation* (Milwaukee: Bruce, 1949), 78.

176) Jedin, *Crisis*, 170-1. 1574년 제 2의 루터라고 불리는 마틴 켐니츠(Martin Chemnitz)는 Examination of the Council of Trent를 써서 신랄하게 공격했고, 더 강력한 반대는 프랑스 교회법학자인 샤를 더 몰린(Charles du Moulin)은 교황과 그의 수종들이 주도한 회의는 무효라고 했다.

177) Cunningham, vol. I, 487, 491.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결정되었다. 모든 것을 교황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보고했고, 의논했고, 그리고 결정했다.<sup>178)</sup> 더욱이 대부분이 이태리인들이었고 몇 명의 독일인들이 참석했다.<sup>179)</sup> 피우스 4세 때에 되어서야 겨우 몇 명의 프랑스의 감독들이 참석하곤 했다. 가장 많이 참석했을 때의 수가 270명가량 되었는데 “그 중에 2/3에 해당되는 180명이 이태리인들이었고, 31명이 스페인들, 26명의 프랑스인, 그리고 범교회들로부터 온 26명이었다.”<sup>180)</sup> 더욱이 참석한 그들은 나름대로의 출셋길을 위해 참석했다.<sup>181)</sup>

그래서 교황과 황제 간에 장소에 대해 옥신각신하며 20여 년간 줄다리기를 했던 것이다. 교황은 이태리 지역에 종교회의를 개최하려고 했고 황제는 가능하다면 이태리 지역에서 벗어나서 독일지역 근처에서 개최하기를 열망하였다. 장소를 옮기기도 하면서 2차례나 휴회하면서 종교회의를 성사시켰다. 더욱이 트레نت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몇몇 존경받고 우수한 학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sup>182)</sup> 하지만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거나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는 거의 없었다.<sup>183)</sup> 진리에 대한 열정도 전혀 없었던 자들이 옹기종기 모였던 회의였다.

당시에 모였던 학자들 중 추기경 레지날드 폴(Reginald Pole)<sup>184)</sup>과 자를라모 세리판도(Girolamo Seripando, 1493-1563)<sup>185)</sup> 등은 루터의 칭의관에 대해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아직도 트레نت의 칭의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황은 자신의 뜻에 따라 진행하라고 하며 사절단을 보냈

178) Jedin, *Crisis*, 22, 27-8.

179) 대체로 이태리인들은 *Zelanti* 라는 단체였는데 교황의 우월권을 매우 강조하는 단체였다.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미래의 교황이 되는 인물들도 들어있었다: Buoncompagni(Gregory XIII), Sfondrato(Gregory XIV), Facchinetti(Innocent IX), 그리고 Castagna(Urban VII) 등이다. Jedin, *Crisis*, 31.

180) Waterwoth, xciii.

181) Francesco C. Cesareo, “Padre et Pastor Vostro”: Girolamo Seripando and the Restoration of the Episcopate in Salerno,” *The Historian* (Spring 1999): 1.

182) 트레نت에 참석한 신학학파의 경향은 주로 세 학파였다. 하나는 초기 Thomists (Bonaventura를 중심), Scotists(Duns Scotus를 중심한 후기 Thomists), 그리고 Gabriel Biel을 중심한 학파(*via moderna*) 등이었다. McGrath, vol. II, 63.

183) Cunningham, vol. I, 490.

다. 70명의 투표자들 중 대부분이 이태리인들이었고 교황의 말에 따라 투표하는 자들이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아 제수잇 회원 알론조 살메론(Alonzo Salmeron)과 디에고 라이네츠(Diego Lainez)를 파송하여 교황의 권위와 지시를 따르도록 종용했다.<sup>186)</sup> 그래서 칭의에 대한 첫 모임은 매우 험난했다. 논쟁보다는 다툼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을 공격한 감독은 감옥에 갇힐 정도였다. 추기경 세라판도는 루터와 유사한 칭의론을 주장했고 감독 시니가글리아의 비게리오(Vigerio of Sinigaglia)는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종교개혁에 관한 법령에 관해서는 더욱 반발이 많았다.<sup>187)</sup> 하지만 30분만 주어진 발언시간을 초월하여 라이네츠는 3시간동안의 연설을 행했고 회원들을 모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sup>188)</sup> 투표하게 되자 32-5로 프로테스탄트 칭의론이 거부되었다.<sup>189)</sup> 모든 것이 교황의 전적인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자신의 우월권을 내세우는 대로 흘러갔다.

184) 포올은 영국 카톨릭 개혁자이다. 트레نت 종교회의의 개회 회기에 3 명의 사회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메리 튜터가 영국에 로마 카톨릭주의를 부활시킬 때 포올은 영국으로 교황 사절로 보내졌고 후에는 캔터베리의 대감독으로 크렌머를 대신했다. 교회와 수도원을 해산하여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람 간에 타협을 벌였던 자이다. 불행하게도 그는 교황, 즉 폴 4 세에게 해임을 당하고 로마의 종교재판 앞에 서게 되었다. 메리가 죽은 직후에 포올도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의 죽음과 함께 로마 카톨릭주의의 부활도 영국에서 사라졌다.

185) 그는 찰스 5세에 의해 Salerno의 대감독으로 지명되었던 자로서 카톨릭 개혁을 주창했던 자였다. 트레نت에 처음부터 참석하여 어거스티니안 수도회의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원죄와 칭의에 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3번째 주기에서도 아직 칭의에 관해 부족한 것이 있다고 주장했던 자이다. Jedin, *Crisis*, 13, 25.

186) Will Durant, *The Reformat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57), 928. 후에는 Peter Canisius와 Claude Le Jay를 더 보냈다. 이들이 끼친 영향을 대단했다.

187) Waterworth, cix. 칭의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Jedin, vol. II, 188-96에 있다.

188) 1562년 7월 21일 처음 발표에서 3시간을 소요하자 다른 사람들은 발언할 기회조차도 받지 못할 정도였다. Jedin, *Crisis*, 37-8.

189) James Brodrick, S.J. *The Origin of the Jesuits* (London: Longmans, Green & Co., 1940), 224.

### < 참고문헌 >

- Althaus, Paul. *The Ethics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1972.
- Anderson, George H. *Justification by Fait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ol. VII. Minneapolis: Augsburg, 1985.
- Augustijn, Cornelis.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Bd. 9,1 in *Religionsgesprache (1539-1541)*. Gutersloh: Gutersloher Verlagshaus, 1995.
- Bailly, Louis. *Theologia Moralis ad usum seminariorum*. Dublinii: Richardi Coyne, 1828.
- Baintain, Roland H.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ew York: Mentor Books: 1955.
- Bauman, Michael and Martin I. Klauber, ed. *Historians of Christian Tradition*. 『기독교 역사가들』 라온성 역. 서울: 이레서원, 2002.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6.
- Bretschneider, C. G. and H. E. Bindseil, ed. *Philippi Melanthonis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III. Halle and Braunschweig: Schowetschke, 1834-1860.
- Brodrick, James S.J. *The Origin of the Jesuits*. London: Longmans, Green & Co., 1940.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Vol XX of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Calvin's Tracts: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with the Antidote*.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951.
- Cesareo, Francesco C. "Padre et Pastor Vostro": Girolamo Seripando and the Restoration of the Episcopate in Salerno." *The Historian* (Spring 1999): 1-14.
- Cunningham, William. *Historical Theology*. 2 Vols.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60.
- Denzinger, Heinrich.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11d. Friburgi Brisgoviae, Germany, West: Herder & Co., 1947.
- Dingel, Irene. "Religionsgespräche IV. Altgläubigprotestantisch und innerprotestantisch." *Theologische Realenzyklopadie* 28: 654-81. Berlin: de Gruyter, 1977.
- Durant, Will. *The Reformat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57.
- Forde, Gerhard O.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The Article by which the Church Stands or Falls?" *Dialog* 27 (August 1988): 260-67.
- Frieling, Reinhard. "Ökumenischer Grundkonsens in der Rechtfertigungslehre." *Materialdienst des Konfessionskindlichen Instituts Bebsheim* 48 (February 1997): 28-32.
- Froude, James Anthony. *Lectures on the Council of Trent*. London: Longmans, 1896.



- Geisler, Norman, L and Ralph E. MacKenzie. *Roman Catholics and Evangelicals*. 『로마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라온성 역. 서울: 그리스심, 2003.
- Immenkötter, Herbert. *Um die Einheit im Glauben. Die Unionsverhandlungen des Augsburger Reichstags im August und September 1530*. Vol. 33. 2d. of *Katholisches Leben und Kirchenreform*. Munster: Aschendorff, 1974.
- Janelle, Peire. *The Catholic Reformation*. Milwaukee: Bruce, 1949.
- Jedin, Hubert. *A History of the Council of Trent*. Translated by F. C. Eckhoff. 2 Vols. St. Louis: B. Herder Book, Co., 1957.
- \_\_\_\_\_. *Crisis and Closure of the Council of Trent: A Retrospective View from the Second Vatican Council*. Translated by N. D. Smith London: Sheed and Ward, 1967.
- Jenkins, Robert Charles. *Romanism: A Doctrinal and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Creed of Pope Pius IV*. [London]: Religious Tract Society, [1882].
- Landon, Edward H. *A Manual of Councils of the Holy Catholic Church*. Vol. I. Edinburg: John Grant, 1909.
- Latourette, K. S.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s, 1953.
- Lexutt, Athina. *Rechtfertigung im Gespräch: das Rechtfertigungsverständnis in der Religionsgespräche von Hagenau, Worms und Regensburg*. Vol. 64 of *Forschungen zu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 Manschreck, Clyde L., ed. *A History of Christianity: Reading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Vol. 2. Grand Rapids: Baker, 1964.
- McGrath, Alister E.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Menyman, Ron. "Justification by Faith and Its Historical Challenges." *Grace Family Journal* (March/April 1998)
- Müller, Gerhard. "Zwischen Konflikt und Verständigung. Bemerkungen zu den Sonderverhandlungen während des Augsburger Reichstages 1530." In *Die Religionsgespräche der Reformationszeit*. Edited By Gerhard Müller. Schriften des Vereins für Reformationsgeschichte 191. Güttersloh: Mohn, 1980
- Nampon, A. S.J. *Catholic Doctrine as Defined by the Council of Trent*. Philadelphia: Peter F. Cunningham & Son, 1869.
- Ott, Ludwig. *Fundamentals of Catholic Dogma*. Edited by James Canon Bastible. Translated by Patrick Lynch. Rockford, Ill.: Tan Books and Publishers, 1960.
- Schaff, Philip.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I. Grand Rapids: Baker, 1977.

- \_\_\_\_\_.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 Grand Rapids: Eerdmans, 1910.
- Schroeder, Henry J.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St. Louis: B. Herder Book, Co., 1960.
- Walker, Williston, et al.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4th Edi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5.
- Waterworth, James. *The Canons and Decrees of the Sacred and Ecumenical Council of Trent*. Chicago, Ill.: Christian Symbolic Publication, 1848.
- Welsh, Robert K. "Justification by Faith: The Critical 'Principle' for an Ecumenical Theology."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23 (Summer 1986): 504-12.